

국내뉴스

문교부 도서관법개정 자료 수집

도서관계의 숙원이며 출판계는 물론 한국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도서관법 개정이 올해안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문교부는 관계자료 수집 등 개정 준비작업을 착수하였다.

대학, 학교, 사학기관 및 관계부처 등 200여 기관에 지난 4월 8일 발송된 도서관법 개정자료수집 공문에 따르면 ①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개념 재정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설치의무화 ③ 남북제도강화 ④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강화 ⑤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활성화 ⑥ 학교도서관의 역할 제고 ⑦ 행정 벌칙 정비 등 도서관계의 숙원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내용에 많은 기대를 건다.

한편 본회는 문교부의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도서관계와 정부 및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효성있는 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도서관주간행사 실시

제22회 도서관주간 행사가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전국의 각급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실시되었다.

전국의 각 도서관에서는 동 주간동안 도서관 이용지도, 좌담회, 강연회, 개관시간 연장 등의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91년까지

시·구·군마다 공공도서관 설치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91년도까지는 시·구·군마다 공공도서관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91년도 말까지는 현재 155개 있는 공립의 공공도서관이 248개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자료목록 작성 용역

본회는 해외공보관과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불란서 파리 7대학에 한국학 관련자료를 집중 지원키 위한 자료 목록 작성 용역을 체결하여 작업중에 있다.

본 작업은 박희영선생과 임종순선생이 실무자 10여명과 함께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책자로 발간하여 한국학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시립 15개 도서관 사서직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서울시도서관연구회는 3월 8일 남산도서관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5년도 결산보고와 86년도 예산심의승인 및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선임하였다.

회장에는 김승철(남산), 감사에 하영식(고덕), 정숙동(용산)씨를 선출하고 각 도서관에서 2명씩 선임된 이사들이 4월에 열

린 이사회에서 전무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총회 개최

연구단지 정보관리협의회 86년도 제1차 총회가 3월 28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협의회 단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84~'85 연구단지 장서종합목록 발간사업 진행보고 및 수요조사, '87년 잔사기판선정, 각기관 발간 연구 보고서 체제 등 제반 협의안건이 처리되었다.

외서수입문제에 관한 회의 개최

지난 3월 20일 본회 사무국에서 문교부 기획관리실의 담당자, 도서관계, 외서수입상 등 외서수입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모여 외서수입에 따른 현황과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회의 결과 법적 문제점 등 여러가지 사항에 의견에 일치를 보고 관계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견의키로 하였다.

제52차 IFLA 동경총회 개최

5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IFLA Ge-

neral Council, Tokyo)가 일본 동경에서 금년 8월 24일~29일까지 개최함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도 많은 참가가 기대되고 있다. IFLA는 1927년에 창립되어 세계적인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의 국제인 단체로서 도서관의 확충 발전과 국제협력활동에 힘써 큰 실적을 거두고 있다. 본부 사무국은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있으며, 현재 120개국에서 1,10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가맹되고 있다.

IFLA 총회는 연1회씩 지역을 바꾸어 개최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는 전체회의와 8개 부회에서 각 1회씩의 부회 회의가 열리며, 참가는 희망하는 회의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미의회도서관 Jean Lindley 씨 내한

미의회도서관 의회조사봉사처 공보관으로 재직중인 Jean Ann Lindley 씨가 아시아 재단의 초청으로 4월 5일 내한하였다.

지난 4월 8일에는 아시아재단 대표의 초청으로 도서관계 및 학계의 20여명이 회동하여 미의회도서관의 현황과 한국도서관계의 의견 교환을 갖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힘